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대학일자리센터 청년여성 프로그램 실효성 제고 방안 과제책임자 강민정 부연구위원 (Tel:02-3156-7137 / e-mail: kangmj@kwdimail.re.kr)

대학일자리센터 여대생 프로그램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제안

초록

- 새정부의 국정과제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추진에 있어서, 청년여성 특히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함. 청년여성의 진로개발과 취업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2003년부터 ‘여대생커리어개발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6년 사업이 종료되고 2017년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음. 여대생 특화프로그램 사업의 추진내용 및 성과는 아직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기에, 이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운영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대학일자리센터로 흡수된 여대생 특화프로그램 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대학의 특성이나 유형에 따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먼저, 운영 상황과 운영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여, 정책적 수요를 발굴하고 컨설팅 계획 수립을 위해 대학일자리센터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음. 61개 중 38개의 응답이 회수되었으며, 이를 통해 현황과 컨설팅 수요를 발굴. 각 학교의 대학일자리센터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본 연구결과는 여대생 특화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가이드를 제시하고, 향후 여대생 특화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1. 배경 및 문제점

- ☑ 여성의 취업난은 남성보다 심각한 상태이며, 청년여성은 좋은 일자리 취업 비율이 남성보다 낮음

 - 청년여성들은 학교에서는 거의 차별을 느끼지 못하고 남학생과 동등하게 경쟁하다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순간부터 다양한 성차별 상황에 직면
 - 청년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데 있어서 준비와 취업연계 뿐 아니라, 경력개발과 유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
- ☑ 청년여성의 진로개발과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

 - 여성가족부가 2003년부터 '여대생커리어개발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7년부터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연간 3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여대생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
- ☑ 여대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정책취지에 알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모니터링이 필요

 - 많은 대학들은 여대생 특화 프로그램의 운영 취지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일자리센터로 흡수된 여대생 특화프로그램 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대학의 특성이나 유형에 따른 지원방안을 모색

 - 대학일자리센터 내 여대생 특화프로그램 운영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모니터링 및 컨설팅 계획 수립, 컨설팅 방안 제시, 정책제언 등

2. 조사 및 분석결과

- ☑ 61개 대학일자리센터를 대상으로 여대생 특화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관련 수요를 파악하여 컨설팅 계획 수립 반영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 대부분의 대학일자리센터는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이 존재하였으며, 담당하는 인력의 규모는 대학 한 곳당 평균 2.94명

〈표 1〉 프로그램 담당 별도 조직 및 인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시행현황	문제점 등
별도의 조직과 인력이 있음	10	27.0
별도의 담당인력만 있음	0	0.0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대학일자리센터 내의 인력이 분담하고 있음	27	73.0
전체	37	100.0

- 대표적 프로그램 3가지 이상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총 144개 프로그램을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면 '직업탐색'과 '직무능력 훈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여대생 특화프로그램 영역별 프로그램 수

(단위: 개)

영역	프로그램 수
자기이해 증진	32
직업탐색	38
취업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33
직무능력 훈련	38
창업-창직 훈련	3

- 여대생 특화프로그램 표준모델의 각 영역별로 그 필요성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직업탐색', '취업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직무능력 훈련'의 필요성이 높았으며, '자기이해 증진', '창업-창직 훈련'은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이 절반 혹은 그 이하로 나타남

〈표 3〉 여대생 특화프로그램 필요성

(단위: 명, %)

영역	필요성						프로그램 수
	낮다		보통이다		높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자기이해 증진	5	13.2	13	34.2	20	52.6	3.53
직업탐색	1	2.6	3	7.9	34	89.5	4.37
취업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1	2.6	5	13.2	32	84.2	4.24
직무능력 훈련	2	5.3	5	13.2	31	81.6	4.29
창업-창직 훈련	7	18.4	16	42.1	15	39.5	3.29
전반적인 여대생 특화 프로그램의 필요성	1	2.6	4	10.5	33	86.8	4.24

- 86.8%의 담당자들이 '성별에 따른 여대생의 장점과 애로사항(취약점)을 프로그램 내용에 반영한 프로그램'을 여대생 특화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

〈표 4〉 여대생 특화프로그램 판단기준 (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성별에 따른 여대생의 장점과 애로사항(취약점)을 프로그램 내용에 반영한 프로그램	33	86.8
프로그램 내용과 관계없이 여대생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프로그램	7	18.4
여대생 참여 희망자가 많은 프로그램	25	65.8
강사의 여대생 지도 역량이 우수한 프로그램	12	31.6

- 운영 시 필요한 지원에 대해,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에 대한 컨설팅 및 정보제공'을 응답한 대학이 78.9%임. 이 중 구체적 컨설팅 수요는 다음과 같음

〈표 5〉 여대생 특화프로그램 컨설팅 희망 내용 (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반적인 방향 설계	23	60.5
영역별 프로그램 구성	26	68.4
강사 섭외	8	21.1
학생 모집(홍보)	12	31.6
지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방식	13	34.2
컨설팅 필요없음	3	7.9
기타	0	0

📍 서울, 경기, 충청, 경상, 전라권에서 각 1개씩 총 5개의 대학일자리센터를 선정하여 컨설팅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통적 필요사항을 다섯 가지 주제로 정리

▶ 학생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 현수막, 자료배포와 같은 면대면 방식 혼용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 필요
- 해당과를 통한 홍보에 중점
-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권역에 있는 학교들과 연합으로 공동프로그램을 운영

▶ 여학생 진로지도

- '온라인 학생 종합경력개발시스템'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솔루션까지 검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도록 대학의 노력이 필요
- 워크넷을 연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커리어넷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개발 준비도검사'를 활용
-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과 진로지도가 반드시 포함

▶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안내서' 활용
- 주변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제시
- 젠더의식 프로그램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부처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프로그램 표준안'을 만들어 제공
- 창업/창직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기초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창업에 성공한 사례 특강, 차년도에 보다 심화된 과정

▶ 강사섭외

- 젠더 교육관련 강사섭외의 경우,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추천하되, 진흥원에서 지역권역별로 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연계해줄 수 있는 강사풀 마련.
-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동문선배, 또는 해당 지역 출신 여성들까지 강사의 범위를 넓혀서 섭외 제한

▶ 취업연계의 어려움

- 기업과의 연계를 담당자의 역량에 맡기기보다는 몇 가지 방법과 가이드를 제공하여 대학과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
- 센터 담당자들도 여성을 선호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거나,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게 지원

3. 정책제언

- 📍 최적의 컨설팅 시점은 1)우선협상대학의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이전, 2)한국고용정보원의 1차년도 및 2차년도 지원대학 컨설팅 시점, 3)대학 일자리센터 관리자 워크숍이나 컨설턴트 연수 시점, 4)그밖에 각 대학이 희망하는 시점임

〈표 6〉 여학생 특화 프로그램에 관한 컨설팅 추진방향

컨설팅 유형	컨설팅 목적	컨설팅 대상	컨설팅 시기
사업계획서 컨설팅	신규 참여대학 공모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요청	각 연도별 신규 참여대학	우선협상대학 선정결과 발표 후 1주일 이내
대학 현장방문 컨설팅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학생 특화사업 운영 현황 파악 - 여학생의 진로-취업지원 성과 제고 - 여학생 특화사업 운영상의 애로사항 지원 	한국고용정보원 컨설팅 대상 대학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간 컨설팅 일정에 준함
대학 현장방문 컨설팅 (B)	대학 현장방문 컨설팅(A)와 동일하나 여대생 특화사업 운영상의 애로사항 지원에 중점을 둠	신청받은 희망대학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대학 측이 희망하는 시기
소그룹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대학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해결 - 여대생 특화사업 운영 노하우 공유를 위한 동료 컨설팅 	대학일자리센터 관리자 워크숍, 컨설턴트 연수 참여 대학	한국고용정보원 혹은 대학일자리센터 권역별 협의회 행사 참여일정에 준함

▶ 사업계획서 컨설팅

- 대학이 제출한 계획서에서 정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즉각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표 7〉 사업계획서 컨설팅의 체크포인트(예시)

체크포인트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예시
여대생 특화프로그램 운영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여학생 특화 사업 계획을 인문계, 다문화 학생 등을 위한 사업계획과 구분없이 제시하여, 여학생 특화 사업이 운영될 것인지 불확실한 경우
여대생의 수요 및 애로사항 해결과 대학일자리 센터 사업 취지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학생 선호도가 높으나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어려운 프로그램 • 청년여성 (예비) 구직자에게 성별 직종분리, 성 고정관념, 성편견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여대생 특화프로그램이 남녀 학생 공통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있는가?	남녀 학생에게 공통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 (예, 직업적성검사)이나 여학생만을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
여대생 참여인원 목표가 적절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대학의 여대생 규모와 여대생 특화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재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적은 목표 점검 • 여학생 참여인원 목표가 너무 과대할 수도 있으나, 사업내용에 따라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음을 고려
여대생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기관과의 협업 계획이 있는가?	전혀 없는 경우, 각 대학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해당 지역에서 협업 가능한 기관 소개

▶ 대학 현장방문 컨설팅

1단계: 운영계획 수립	2단계: 컨설턴트 워크숍 운영	3단계: 컨설팅 실행	4단계: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및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대학 선정 • 대학별 컨설팅 시기 검토 • 컨설팅 내용 및 결과 피드백 계획수립 <p>참고사항) 현장 방문 컨설팅 대학 수는 예산 규모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턴트 역할 확립 • 바람직한 태도 공유 • 보고사항과 관련 서식 안내 <p>참고사항) 대학 수가 많을 경우 워크숍 형태의 운영이 적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검토 • 특성 분석 • 여대생 특화 프로그램 컨설팅 수요 사전진단 • 대학 소재지 지역 특성 분석 <p>참고사항) 컨설팅 운영기관은 문건의 작성 양식을 사전에 배포하고 작성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에 참여한 전문가가 결과보고서 작성 • 운영기관 검토 보완 • 관계부처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 보고 <p>참고사항) 관계부처의 검토를 거친 후에 각대학에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제공</p>

▶ 소그룹 컨설팅

■ 여러 대학이 공통으로 직면하는 문제의 발굴, 해결방안 모색, 운영 노하우 공유

- 1) 영역별 우수 프로그램 운영사례 수집 및 확산
- 2) 여대생들이 참신하면서 도움이 된다고 평가할 만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 3) 각 대학의 여대생 특화프로그램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활동이 필요

📍 여대생 특화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프로그램의 성인지성 확보

- 교과로 남녀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수업이 되어야 하고, 교육내용은 한쪽 성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남녀학생 모두 성인지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

▶ 강사 풀 확보

-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산업단지, 새로일하기센터, 인력개발센터 등 기업이나 전문가 풀을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를 확보
- 대학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동문들 리스트를 잘 관리하여 졸업 후 강사로 활용

▶ 졸업생 지원프로그램 필요

- 졸업한 지 1년 미만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성
- 타대생이나 인근지역의 청년들까지도 쉽게 접근

▶ 매뉴얼 보완

-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개발한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안내서'는 여대생 특화프로그램에 대한 '개요'로서 활용
-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는 매뉴얼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거나 기존 안내서를 보완하여 제공